

책과 한국인, 그 애정지수는?

Book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입국을 고대하며

'책을 읽읍시다!'

이젠 슬로건 축에도 못낀다. 멀미나는 잔소리쯤으로 치부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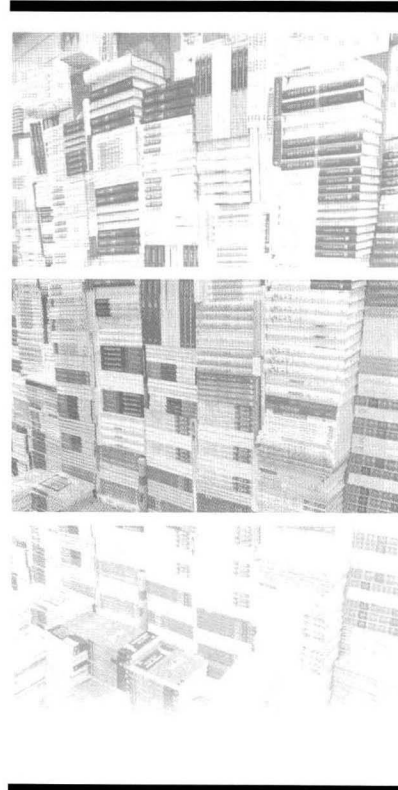
그러나 어찌랴. 앎을 찾는 행위가 인간 이성의 또다른 표현이며, 알고자 느끼고자 읽는 행위는 사람답기 위한 본질의 특성이다. 인격의 품질과 인간성의 깊이를 다지는 진지한 작업이다.

허나 현실은 문자적 삶과 사뭇 이율배반적이다. 활자 내지 책보다 더 매혹적인 정보수단과 매체가 넘쳐 난다. 책보다 더 화급하고, 읽는 행위보다 더 실속있어 보이는 삶의 방법과 도구가 일상의 행간에 가득하다. '책 못읽게 하는 사회'가 달리 없다.

최근 일반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하다. '책읽는 대한민국'이란 기발하고 매력적인 신조어가 낫설지 않다. 그럴진대 독서시장의 소비자 심리는 과연 어떤가. 그들, 곧 우리 사회의 책에 대한 애정지수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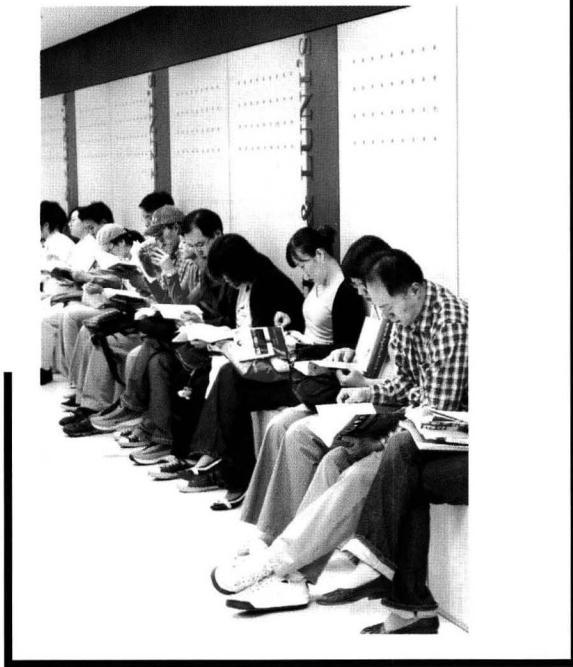
분명 '책을 읽자'는 말은 듣기에 무미하고 건조하다. 그러나 육신의 영양실조가 문제이듯, 정신과 내면의 궁핍 또한 있어선 안될 터. <출판저널>이 한국인의 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측정코자 함은 그 때문이다. 그리곤 같은 말로 권면할 수밖에 없다. 비록 멀미나고 진부해도...

'대한민국이여, 책을 읽읍시다!'



바쁘게 살기를 강요받는 한국인들, '책 읽을 여유 없어'

책 못 읽게 하는 현실



대학시절부터 자타가 공인했던 책벌레 서현주(34) 씨는 몇 해 전부터 지하철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을 청하거나 스포츠 신문을 열독했지만 곳곳하게 책을 지키길 6년.

그런데 지난 2002년 5월 말부터 '무거운' 책은 집에 두고 다니기로 했다. 책의 빈자리는 다름 아닌 무가지(〈메트로〉)가 차지했다. "무료신문 보고 회사에 가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어 좋다"는 서 씨는 "회사와 집에서 (책을) 짹짹 읽기는 하지만 지하철에서 보던 것만큼 집중해서 못 읽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다시 책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미 수많은 무료신문들에 중독 되어 있어 밋밋한 레이아웃의 책들은 읽는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료신문과 첨단 미디어 기기의 각축장, 지하철

현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배포되고 있는 무가지는 〈메트로〉 〈포커스〉 〈AM7〉 〈데일리썬〉 〈스포츠한국〉 등 5종이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50만 부 이상 배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줄잡아 250~300만 부의 무료신

문이 배포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2006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루 지하철 이용인구는 1,086만 명. 열 명 중 두세 사람은 무료신문을 들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러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신문을 탐독(?)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한때 지하철을 점령했던 스포츠 신문들과 주요 일간지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정연규(21) 씨는 "아침에 학교 가면서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지하철역 앞에서는 〈메트로〉나 〈포커스〉나, 그것도 아니면 〈데일리썬〉이나를 두고 갈등할 때가 많다"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너 개의 무료신문을 모두 가져갈 때도 많다"면서 쑥스러운 듯 웃는다.

최근에는 스포츠 신문의 아성을 무너뜨린 무료신문의 입지를 흔드는 다크호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하철 독서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그 다크호스는 바로 MP3로 시작된 첨단 미디어 제품들이다. 그나마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MP3마저 이제는 '구식'이 되어 버렸다. 언제 어디서나 일반 공중과 및 케이블 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는 DMB 방송이 상용화되면서 DMB 휴대폰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및 위성 DMB 휴대폰은 가격대가 높는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으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게임은 물론 영화와 음악 감상이 가능한 PSP(Play Station Portable)에 열중한 젊은 사람들도 지하철 안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작은 화면 옆에 달린 더 작은 버튼을 열심히 누르는 젊은이들이 바로 PS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PSP와 유사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의 보급 속도도 놀랍도록 빠르다. 음악은 물론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PMP는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갖춘 휴대형 멀티미디어 재생기로, 영화나 뮤직비디오 한 편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첨단 기기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휴대폰에 내장된 오락게임이라도 즐기고 있으니 이래저래 책 읽을 시간은 없어 보인다. 회사원 허유진(28) 씨는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는데, PMP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하루의 시작이 산뜻하다”고 말한다.

《아침형 인간2》의 저자 쿠로카와 야스마시는 “하루 중에 가장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단연 지하철”이라고 강조하며 “시간 잘 가고 집중하면 소음도 인식하지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민의 발자 거대한 도서관이었던 지하철은 이제 무료신문들과 첨단 미디어 기기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다.

라면 받침 안 된 게 다행?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는 냉엄한 현실 가운데, 회사에서 ‘책을 읽는 행위’는 차라리 배신에 가깝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다 출근해 책상 앞에 앉으면 이메일 체크로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 같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큼 파괴력 있는 책이 없을뿐더러, 주변 시선도 녹록치 않다. 입사 10년 차 과장인 정의석(39·가명) 씨는 “독서 경영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건 업무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일과 시간 외에 책을 읽어 경영에 보탬이 되라는 짜 맞추기식 방법일 뿐”이라고 쓴웃음을 짓는다.

책은 집에서든 뒷방 노인네쯤으로 인식된다. 거실은

대형 TV가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방방마다 컴퓨터를 들여놓았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주몽>과 <연개소문> 등 대하사극을 봐야 하는 아빠와 <포도밭 그 사나이> <돌아와요 순애 씨> 등 드라마를 봐야 하는 엄마의 쟁탈전에서 책의 설자리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책과 거리를 두고 사는 아빠·엄마 슬하에서 책 읽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개천에서 용 나기 바라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 듯하다.

전업주부 전순정(42) 씨는 “엄마·아빠는 TV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책 읽으라고 하기 미안하지만 안 보면 궁금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한다. 책은 이제 집에서 ‘라면 받침’으로 쓰이질 않는 것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독서는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

“일본 사회 자체가 책 읽는 사람에게 냉담해요. 책을 읽는다는 건 고독한 행위고, 또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런데 일본사회는 바빠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느긋하게 책을 읽을 시간 따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온다 리쿠의 《삼월은 붉은 구렁을》에 나오는 대목이다. 지하철 독서열기가 뜨겁다고 알려진 일본 사회가 책 읽는 사람에게 냉담하다는 말도 놀랍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 사회가 ‘바쁘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느긋하게 책 읽을 시간은 없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책 읽을 시간 ‘따위’로 표현될 만큼 지나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은 버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여기 나열한, 책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이유들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더 많은, 그리고 복잡다단한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책과 가능한 멀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그 쾌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듯하다. ☞